



강사님의 간략한 프로필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티칭을 하게 됐고, 텍사스, 애리조나에서 살았다가, 뉴욕주립대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티칭을 쪽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경제학, 정치학이었는데, 기업 강의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티칭을 했으니 8년여 정도 됐고요, 티칭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부터이니 꽤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 방법이나 교육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 교육 흐름은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암기 위주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암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기를 하면 인풋-아웃풋을 계속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암기를 한 것에 대한 아웃풋 모멘트가 형성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성인교육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학습자들은 공부도 잘 하였고 문법도 단어 지식도 높으십니다. 일단 발화량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말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구조와 틀을 만들어주고 이를 체화시키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눈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연작을 하고 있다

글로벌교육사업본부

Claire Ha 강사

“언어 하나를 더 배운다는 것은 사고와 그 사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어라는 언어 라고만 바라 보지 말기를 학습자 분들께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캐럿 출강을 제안해준 절친 구유키 매니저와 함께

는 것입니다. 틀을 통해서 체화를 시켜서 발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어민 처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어민에 근접하는 달변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를 꿈꾼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길을 시도해 봤습니다. 티칭은 지속적으로 이어왔었고요, 어느 때인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문득 뵈어야겠다는 생각에 교수님이 계신 하와이를 갔다오게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티칭'이었습니다.

영어 강사로서 본인의 Mission이나 꿈이 있다면...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언어 하나를 더 배운다는 것은 사고와 그 사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어라는 언어 라고만 바라보지 말기를 학습자 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학습자 분들이 의사 표현을 더 잘 할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다양한 영역을 접하게 되고 그를 통해 제 자신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생활에 비타민이 있다면? 힘을 얻는 에너지가 무엇인가요?

재미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싶은 성격이라 어느 하나에 빠져서 몰입하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미헌터'라고 할까요. 최근에 시작해서 깊게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텐딩'입니다. '사운드 온 잠실'이라는 곳에서 알바로 수업 삼아 바텐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생활의 가장 큰 비타민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현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재미있는 것들을 자주 생각해보시라고 주문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다 하기 싫어지니까요, 재미있는 것을 끌어내어 발화량을 늘리고 자신의 것으로 체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어를

중시하라고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네이티브가 되는 것은 어려우니 일단 보류시키고, 최소한 내가 할수 있는 말을 중시하자고 강조합니다. 컬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슬랭은 무리입니다. 슬랭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일단은 표준어를 사용하자는 주의입니다.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최신 리포트를 구해 와서 수업에 활용하면 학습자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효과와 학습자 호응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면 수업과 비슷한 효용 가치를 내면서 강사 뿐만 아니라 학습자 분들도 어디서든 수업을 받을수 있다

는 점이 비대면 수업의 강점이겠죠, 비대면 수업에서는 타이핑을 바로바로 할수 있으니 즉각적인 커렉션이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양쪽이 호응도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이 훨씬 재미있고 수업 집중도가 높아, 두 수업 방식을 잘 조합해서 상호 보완하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캐럿글로벌이 타사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캐럿글로벌에 합류한지는 7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캐럿글로벌은 매니저님들의 매니저먼트가 탁월한 편입니다. 강사와의 관계도 수월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캐럿글로벌의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친연니 결혼식때 축하 부르는 순간



사운드 온 잠실에서 바텐딩



홀로 떠난 하와이 여행